

# 광양시, 이차전지·수소·스타트업 중심 미래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

## 미래형 산업 3각 축 완성... 에너지부터 창업까지 한 도시에서 K-배터리·수소경제·스타트업이 견인하는 산업 혁신도시 광양

전남 광양시가 철강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이차전지·수소·스타트업을 축으로 한 '미래형 산업 3각 축'을 완성하며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민선 8기 3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위기 대응,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을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 이차전지 풀 밸류체인 구축... K-배터리 중심도시로 도약

광양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리튬 원료 확보부터 전극재·양극재 대량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모든 공정을 한 도시 안에서 완결하는 이차전지 풀 밸류체인을 갖췄다.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은 그동안 중국산 탄산리튬 의존도가 높았으나, 광양은 자립형 공급 체계를 통해 원료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포스코필라리튬솔루션은 호주산 광석을 활용해 연 4만 3천 톤의 수산화리튬을 생산하고 있으며, 포스코리튬솔루션은 아르헨티나산 염수를 활용한 연 2만 5천 톤 규모의 리튬 생산 체계를 올해 준공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전극재는 니켈·코발트·망간 등 금속을 결합한 소재로, 리튬과 합성해 양극재로 가공되며, 그동안 국내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울존산단에 연 4만 5천 톤 규모의 포스코퓨처엠 전극재 공장이 완공되면서 생산이 본격화했다.

양극재 생산에서도 광양의 위상은 확고하다.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연간 9만 톤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60kWh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약 100만 대분에 해당한다. 현재 하이니켈 NCM, NCMA 계열 양극재를 양산 중이며, 향후 4만 5천 톤 규모의 5단계 NCA 양극재 공장이 추가 준공되면 연산 13만 5천 톤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차전지 산업의 완결을 위한 재활용 인프라도 갖췄다. 광양 포스코HY클린메탈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은 연간 1만 2천 톤의 폐배터리에서 블랙파우더를 추출해 니켈 2,500톤, 코발트 800톤, 탄산리튬 2,500톤 등을 회수하는 설비를 운영한다. 회수된 금속 자원은 다시 전극재·양극재 공정에 투입돼, 이차전지 소재 산업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순환경제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차전지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울존산단 일원 40만 평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2023년 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한 국가산단 동호안 매립지 활용 규제 완화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 ▲폐배터리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

의 노력과 기업 투자가 맞물리면서, 이차전지 풀 밸류체인이 완성됐다. 이를 통해 신규 고용 창출은 물론, 포스코그룹과 협력하는 지역 중소기업 생태계가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앞으로 10년간 광양에 4조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해 이차전지와 수소 산업 인프라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이러한 민간 투자가 지역 발전과 직결되도록 산업 인프라 지원, 제도 개선,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친환경 수소도시 본격 조성 박차

광양시는 이차전지 산업에 이어 수소 산업도시로의 전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수소시범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된 광양시는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해 총 400억 원 규모의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하반기 '광양 수소도시 마스터플랜'을 확정했으며, 2028년까지 생산·이송·활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시이자 새로운 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내외 우수사례를 참고해 수소의 생산, 이송, 활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수소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수소생산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했고, 3월에는 시민 참여형 '수소체험 커뮤니티(홍보센터)' 조성에도 착수했다. 이 홍보관은 시민이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수소도시 전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전 인프라도 빠르게 확충 중이다. 지난해 말 초남산단에 준공된 전남 제1호 액화수소충전소는 시간당 200kg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으며, 수소버스 150대 이상

을 충전할 수 있다. 기존 성황 수소충전소도 버스 충전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장해 광양은 전남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망을 확보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광양시는 수소 모빌리티 활용 분야 확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운행 중인 수소버스의 확대 보급은 물론, 수소청소차·수소지게차·수소드론·수소바이크·이동식 수소충전차량(튜브트레일러)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를 공공과 산업 분야에 우선 도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소도시 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광양시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향후 전국 수소경제 확산을 이끄는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여수광양항을 활용한 청정수소 수입 거점 항만화와 포스코 철강공정의 수소환원 전환이 맞물릴 경우, 광양은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전략적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스타트업 육성으로 혁신 생태계 구축

광양시는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속도를 내며 지역 산업 생태계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과거 인구 7만 명의 작은 농어촌 마을이었던 광양은 1982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건설을 계기로 40여 년간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산업 구조 전환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를 중심으로 한 미래형 경제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자리잡은 광양시는 청년층 유입 전략의 하나로 창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왔다. 대표 사업인 '광양 벤처밸리'는 지난해부터 전라남도도와 포스코가 함께 추진하는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술창업 보육과 창업 문화 확산을 통해 광양을 '전남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는 목표를 담고 있다.

시는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남 스타트업 포럼'을 광양·여수·순천에서 열어 스타트업, 투자자, 지원기관, 지역대학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유명 스타트업 대표를 초청해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스타트업 콘서트'를 개최, 지역 주민과 예비 창업자에게 기업가 정신을 전파했다.

실질적 지원도 강화했다. 지난해 8월에는 포스코와 RIST 출신 박사급 연구 인력이 주축이 된 '포스코벤처지원단'을 출범시켜 전남지역 스타트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제1회 광양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개최해 이차전지, 수소, 로봇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기업 연계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 상담회를 진행했다.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광양시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체인지업캠프', 초기 창업자를 위한 '빌드업캠프', 스타트업과 투자사를 연결하는 '체인지업데이'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벤처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물리적 인프라도 속속 갖추고 있다. 올해 1월 문을 연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는 철강·에너지·융복합 산업 분야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거점으로, 개소 5개월 만에 23개 기업·기관이 입주를 완료해 운영에 들어갔다.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인 '체인지업그라운드 광양'은 포스코그룹이 설계한 스타트업 특화 창업보육시설로, 창업·보육·투자·사업화 검증(POC)·해의 진출까지 초기 스타트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곳에는 유망 스타트업 33개 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의 이러한 스타트업 육성 전략은 지역 산업 구조를 미래 지향적으로 재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차전지와 수소 산업 발전에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하면서, 광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적 산업 생태계로 변모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차전지와 수소 산업은 광양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광양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고 혁신이 활발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시신호 기자



### '안전한 조선소'... 대불산단 출근길 안전 캠페인

#### 전남도·영암군·대불산단 기업인·근로자 등 현장 무사고 다짐

전라남도는 중대재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근길 안전 캠페인'을 지난 19일 영암 대불산단에서 개최했다.

캠페인에는 전략산업국장, 영암군수, 노동부 목포지청장, HD현대사호 부사장, 대한조선 사장,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장, 기업주와 근로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안전작업 철차 준수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구호 아래 산업업체에 예방을 다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연 15억 원을 들여 중소 조선업체에 안전시설 개선

을 지원하는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11개사를 선정했으며, 9월에는 기업주와 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삶과 가족, 기업, 나아가서는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전남도는 중대재해 없는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산업안전 인식을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영길 기자

### 광주시, 근로자 695명 고용안정에 23억 투입

#### 자동차·가전 재직자, 금호타이어 협력사에 맞춤형 선제 지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고용 둔화와 산업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 69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 3월 50억원 규모로 추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지원에 이은 추가 지원으로, 고용 불안에 겪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1억원, 시비 2억원 등 총사업비 23억원을 확보, '주력산업 일자리 버팀목 사업'과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협력업체 긴급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가전산업 재직 근로자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 및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가전산업 근로자에게는 ▲재직자 내일채움공제(3개월, 1인 최대 50만원) ▲장기근속장려금(재직 3·5·7·10년 구간별 100만~250만원) ▲가전산업 재직자 건강검진비(1회 3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재직자 4대보험 기업부담금을 3개월간 1인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완화한다.

지난 5월 발생한 금호타이어 화재사고

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화재 당시 용역업체 소속으로 광주공장에 근무하고 있었던 근로자 중 급여 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1인당 15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는 고용유지율에 따라 고용보전지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를 도모한다.

해당 사업은 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받으며, 광주광역시 누리집(www.gwangju.go.kr)과 광주지역산업진흥원 누리집(gi.rria.or.kr)을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50억원을 투입, 자동차·가전·뿌리 산업 분야에서 560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고용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지역 주력산업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덜어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특히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 사과